

‘오름’ 위에 빛나는 정상 의 흰눈

- 국립공원 한라산 기행 -

장 태 현

(청주대 조경학과 교수)

그동안 육지에서 뿔낸다는 산들은 거의 섭렵을 하면서도 한라산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별로 인연이 없었다. 바다 건너라 하지만 백두산도 8번 이상 올랐었고 그때마다 남쪽의 한라산을 염두에 두었으나 귀국하면 또 다른 산을 오르곤 하였다.

그렇게 이해 못할 것 중의 한가지가 아내와의 여행기회였다. 무슨 답사, 용역조사 등으로 언제나 일 핑계로 밖으로만 나돌았지 항상 아내에 대한 배려는 다음 기회로 밀리게 되었다.

26년전 철모르던 신부와 속리산 문장대에 올라 신방을 꾸며던 것을 “산이 좋아서”라고 둘러대었지만 틈만 있으면 “오늘날까지 제주도 한 번”을 짚을 때에는 제대로 대꾸 한번 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동안 두어번 해외여행 기회도 없지 않았지만 늘 불만의 대명사가 ‘제주도’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딱히 제주도만은 아닌 것은 알면서도 얼마전 제주도의 여행을 제안하였었다. 아이들 뒷바라지를 염려하면서도 선뜻 나서는 것을 보고 이번 기회에 면죄부도 받을겸 다음 기회의 말막음을 하기로 작정하고 ‘힘든 등산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30여년전 업무차 제주도를 찾았을 때는 한창 개발을 서두를 때라 열악한 도시환경, 긴장된 업무처리, 거북한 바람까지 겹쳐 제주도에 대한 인상은 그리 밝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나 신혼여행의 젊은이들이 제주도를 찾는 것을 보면 의아하기도 했었고 그 좋은 우리나라의 여러 산중에 한라산을 오른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하니 막상 모처럼의 여행길이 염려되기도 하고 엉거주춤 따라나서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선입견으로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도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 바다에 솟아 있는 하나의 산으로서 펼쳐지고 있었다. 내륙에서와 같은 용트림의 산맥도 없었고, 깊은 계곡에 의한 특별한 형태의 인상적인 경관도 없는 평범하고 광활한 전형적인 산의 모습으로, 바닷가 평탄한 지대에 삶의 터전이 좀더 확장되어 나간 것만이 새로운 변화일 뿐이었다.

그러나 오랜만에 다시 찾은 제주공

항의 모습은 옛날과 같은 척박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동안 자연에 의한 인문환경을 견주어 볼 수 있는 필자의 연륜도 변화일수 있겠으나 문혔던 잠재력을 관광요소로 일구어낸 도시의 외관은 전연 새롭게 변모되어 있었다.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교통망의 확장과 관광·레저산업의 발달, 이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와 도시색채의 변화가 낯선 도시에서와 같은 호기심을 충동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의 정체성으로 남아 제주도의 면모와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의 우선은, 밝은 햇빛과 검은색의 화산암으로 흩어져 있는 돌무더기의 원시적 조화는 옛 모습 그대로였다. 지난날을 유추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은 아직까지도 물자락 구석구석에 남아 그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바닷가로만 이어진 가까운 왕래는 항구도시로만 발전하였고 화산재로 뒤덮혔던 제한된 농토보다는 바다에 의존한 어업이 주요 생존 수단으로

남아있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하다보니 산에 대한 외경심(畏敬心)보다는 바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무속적 주술행위도 물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삶의 토속적 흔적 역시 물의 산물인 돌로서 바다 바람을 막거나 생활터전을 보호하는 시설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생활공간의 모습도 산에 의존하는 육지와는 달리 바람에 방어적인 자구책으로서, 둔하면서도 앞으막하고 식수를 근원으로한 저지대에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육지와 오랜시간 떨어져 있었으므로 지배계층에 의한 귀족적 문화유산이나 교육·종교시설보다는 자연에 순응하기 위한 현실적 삶의 표현이 그대로 전수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 배경으로서의 한라산의 모습은 제주도내의 기후변화만이 아니라 적응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생업의 대상, 주민들의 성품과 습관에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고 육지와 구별되는 독특한 모습으로서 흥미로운 관광대상이 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한라산은 이러한 분리의 계기보다는 '우리들의 산'으로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육지사람과 구별되는 굳은 연고주의로 묶어주어 애향심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 와서야 척박한 자연환경과 삶의 지혜가 인상적인 관광요소로서 새로운 생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산자락과 바닷가의 절경, 그리고 지역의 별미와 호기심의 사투리를 일주하고 나니 서서히 한라산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어느 방향에서 보나 푸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산, 첩첩이 숨기고 가리워진 신비의 멋은 없다 하더라도 설악산의 냉정함과 지리산의 육중함에 비하여 그 모습 자체로도 압도적 권위를 갖추고 있는 듯 하다.

특히 성산포 일출봉에서 몇 개의 '오름'을 거쳐 아득히 빛나고 있는 정상은 흰눈은 백두산 수림대의 넓은 수해(樹海)를 연상하게 되어 부족함이 없는 감동과 신비로움을 더하게 된다. 더구나 인생의 동료와 함께 산

행을 하게 되었으니 오랜만의 낭만적 시간을 고려하여 눈축제에 들뜬 코스 보다는 편하고 분위기 있는 성판악 코스를 택하기로 하였다.

산에 오르는 날, 이른 새벽잠을 설치고 산복을 구비쳐 오르니 겨울 한 가운데의 날씨치고는 바람 한점 없는 축복받은 아침공기였다. 적당한 적설량에 맑고 깨끗한 햇살까지 받게되니 선택된 날 제격의 신혼여행길이 되었다.

개활지가 없이 숲 사이의 통로만 이어져 지루하긴 하였어도 뒤따라오는 아내의 발자국 소리를 느끼며 걷게되니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게만 느껴지게 되었다. 숲 속에 자생하고 있는 서나무와 졸참나무, 때죽나무 등의 짙은 음영과 흰눈과의 강한 대비, 조릿대와 팽팡나무가 눈 사이로 얼굴을 내민 귀여운 모습, 그 사이로 비치고 있는 눈부신 햇살 등은 그림과 같은 분위기였고 숲속 까마귀의 울림까지도 음악소리 같은 쾌적한 느낌이었다.

1,000m 고지를 지나 휴식을 하면서 평소 한가하게 나눌 수 없었던 막내의 공부문제, 큰애들의 결혼문제부터

집안 어른들의 건강, 아내 친구들의 근황까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역시 이곳은 중년들을 위한 최적의 코스가 되었나 보다.

쉬엄쉬엄 3시간 동안의 숲의 터널을 빠져 개활지에 다달으니 어느덧 진달래밭 휴게소(1,500m)에 다다르게 되었다. 멀리 내려다보이는 포구와 바닷가를 구별하면서 잠시 휴식을 한 후 눈덮힌 정상을 향해 다시 구상나무 숲으로 들어서게 된다. 사스레나무와 매발톱나무가 깔려있는 경사로를 한시간 가량 힘들게 오르니 벌써부터 정상에서의 합성과 탄성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90년도 여름, 처음으로 백두산에 올랐을 때의 벽찬 감격을 새삼 떠오르게 되니 무언가 가슴을 두드리는 감동을 느끼게 된다. 비록 중국 쪽에서의 접근이기는 하지만 안개속 바람을 헤치며 흥분된 가슴으로 올랐다가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천지의 모습에서 자연의 오묘한 연출력과 민족적 영산에 대한 분위기로 가슴을 터지게 했던 감격의 순간들.

6천 5백만 민족이 한데 어울려 목욕을 하여도 부족함이 없었던 천지의 포용력과 비교할 수는 없어도 이곳 정상, 눈 속의 화산구를 대하니 천지로부터 시작된 민족의 영기에 감전되는 듯 저 멀리 북쪽을 향하여 흥분된 마음을 추스려 보게 된다. 백두산에서 다짐했던 한라산 등정의 개인적인 성취감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였다는 흡족감이 한데 엉기어 찬바람의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고 서성거리게 된다.

젊은 아들놈에게는 용기를 부추기고 나이 먹어서는 끈기로서 뒤를 따라준 아내의 손을 꼬옥 잡아본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주례사에서 부부간의 호흡을 강조하면서도 늘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다. 이렇게 지난날을 회고하며 앞으로의 구상을 정리할 수 있는 의외의 선물을 받고나니 흡족한 마음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햇살이 퍼지자 아침의 신비는 가셨지만 올라온 곳의 반대경관을 음미하면서 내려오니 어느덧 관리사무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안전, 구조도구들이 부산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무실에 들어서자 환상적이었던 산행분위기는 순간적으로 가시고 습관적인 관심분야로 돌아서게 된다. 국립공원의 지정 배경, 공원의 경계설정, 공원의 특성 요소에서부터 관리 현황까지 사뭇 전문적인 자세였지만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에서는 짧은 식견의 제안으로서 남기게 된다.

현재 공원의 경계는 남북 600m, 동서 500m 정도의 고지 상단만이 지정되어 있다 하는데 이는 주로 임업분야에서의 국유림을 경계로 하였다 한다. 그러나 제주도 전체나 한라산의 원시림이 그나마 육지의 산림보다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은 국가나 도민들의 환경보호 의지의 결과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지난 세월 우선의 생활근거로서 육지와 같은 농업이나 임업이 불가능하였기에 불모의 대상으로서 자연적 원시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도 생산성에 기대할 수 없고 관광개발의 화급한

적지가 아니라면 먼 훗날의 자원활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원경계의 확대를 제안하고 싶다. 이러한 제안은 경관적 측면에서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라산의 완만한 지형의 흐름은 바다에 닿는 해안까지 이어지므로 개발 가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어설픈 개발의 흔적도 하나의 원시림으로 복원이 가능하고 원시림 자체로도 훌륭한 관광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적극적 개발기법은 궁극적인 경제적 효과로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육지에서의 무절제한 개발 경험을 참조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하단부에서의 제한을 기대하게 된다. 특히 현재의 개발 기술보다는 장래의 개발기법에 의한 유보적 기다림이 좀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것이기에 더욱 미련을 갖게 된다.

옛날 나뭇꾼에 의한 훼손보다는 레저라는 명목의 ‘꾼’들의 분탕질로 민족의 상징적 공간이 변질되어 간다는 것은 토속적 문화로만 가꾸어 왔던 제주도민들의 정서에도 저주받을 일

이고, 국유림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 여건에서 정부의 의지력만 있다면 이는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제주도민들의 의식상 ‘우리의 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장래를 육지사람들의 과잉욕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지난 삶의 지혜를 좀더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공항까지 내려오면서 이러한 나의 관심사를 조심스레 건네 보았더니 흐트러진 분위기에 실망할 줄 알았던 아내는 나의 생각에 선뜻 공감하는 자세였다. 아내 역시 흡족했던 여행결과에 만족한 듯 하였고 오늘의 체험이 막내놈에게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면 한라산과 제주도의 훼손은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생순리의 즐거움을 제공한 한라산의 음덕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언젠가 다시 찾아 보답을 하여야겠다.▲▲